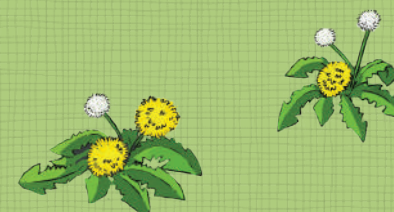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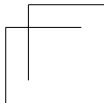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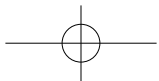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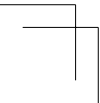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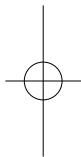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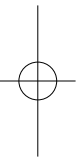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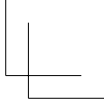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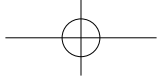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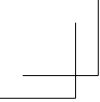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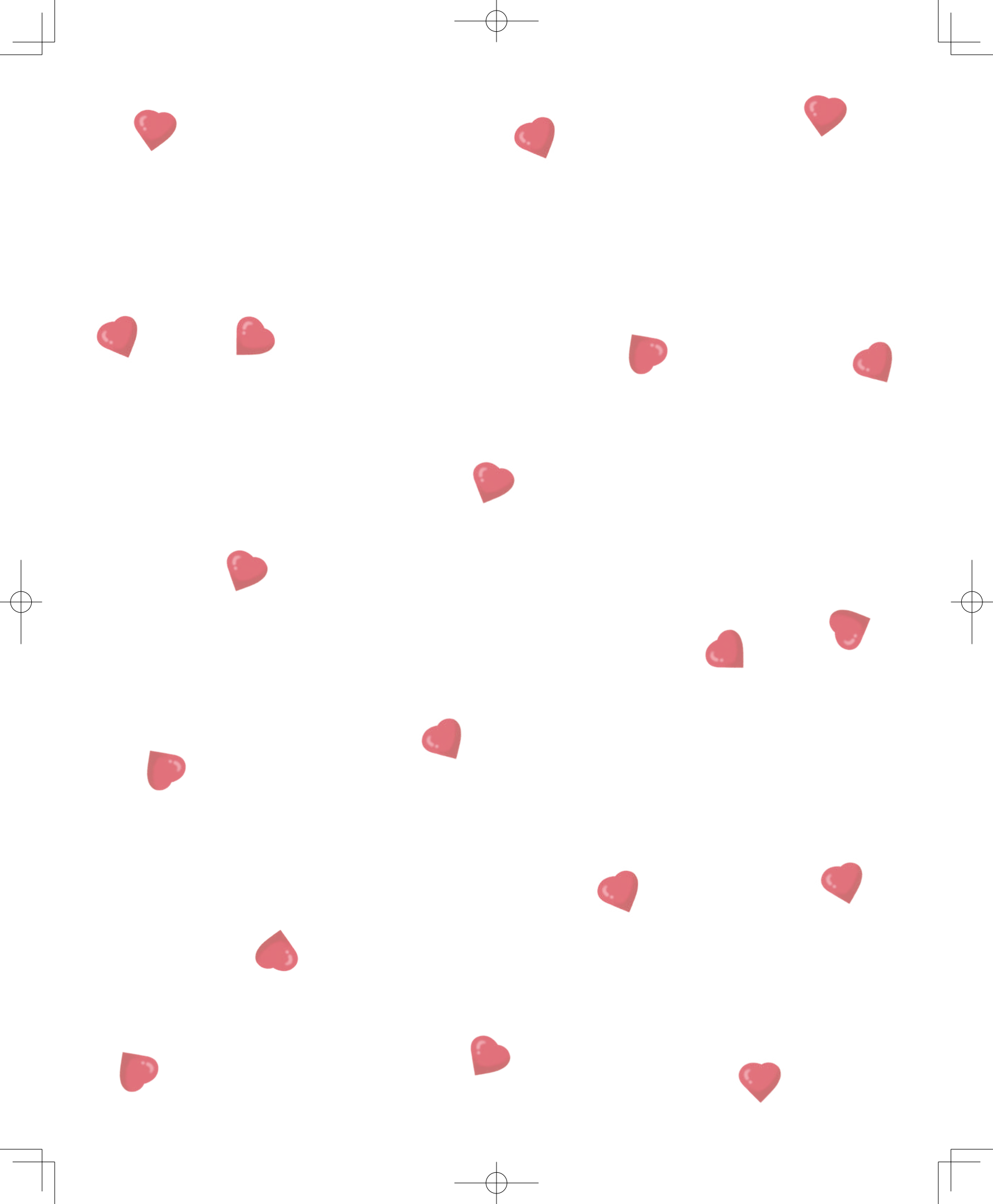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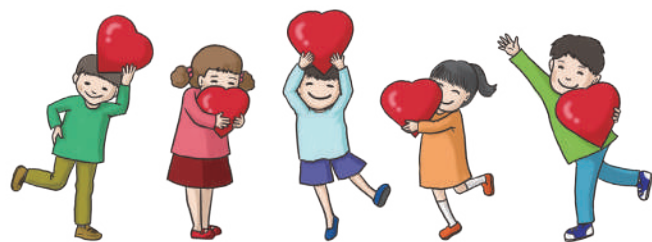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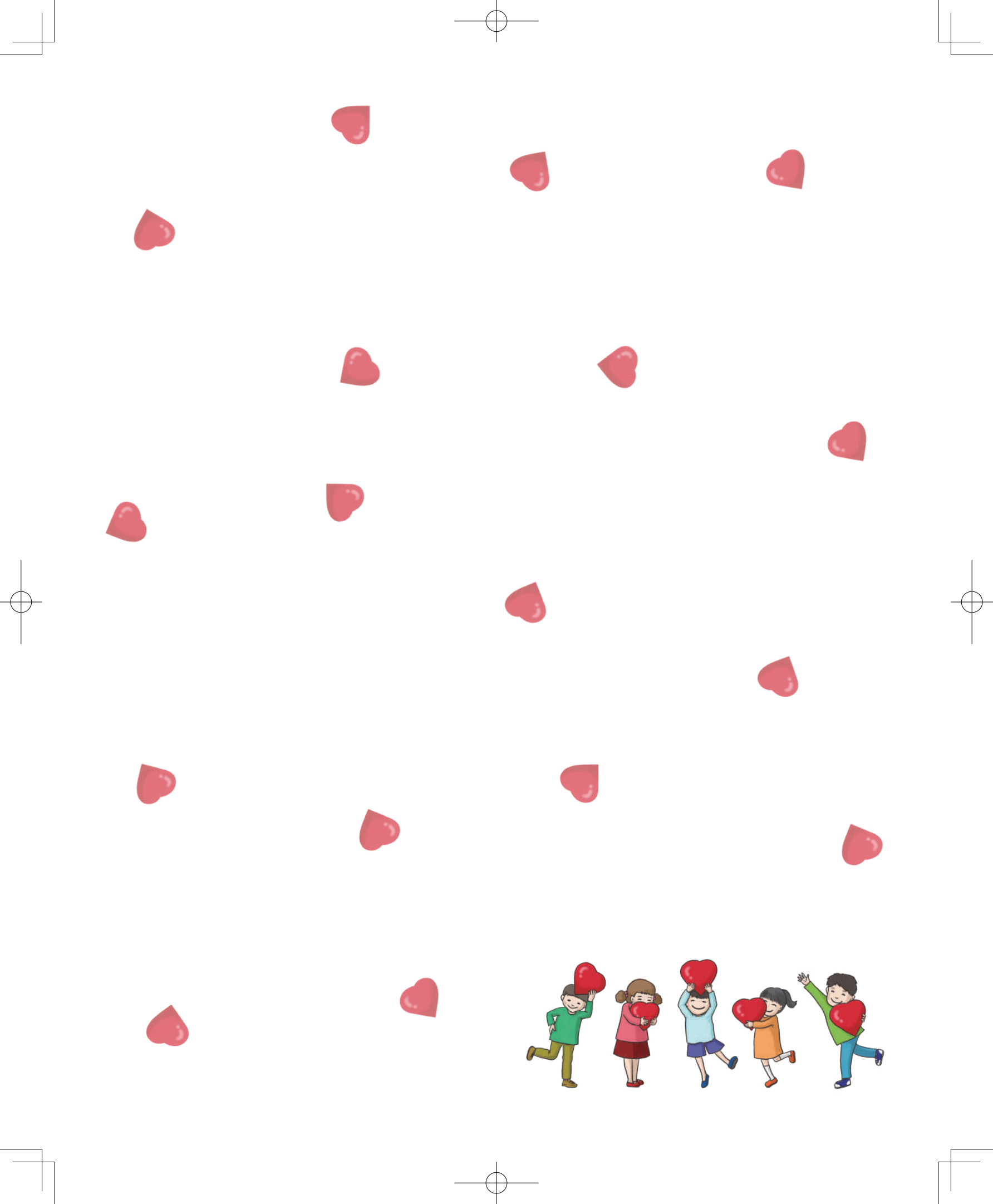


행복한 나눔 생활









김만덕기념관

발행인 : 사단법인 김만덕기념사업회 상임대표 고두심

발행처 : 김만덕기념관

제주시 산지로 7 Tel. 064-759-6090, Fax. 064-759-6097

총괄 : 김상훈

기획 및 편집 : 곽민, 김현주, 양수임

진행보조 : 김미영, 김세영, 김창현, 전학봉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글 : 이명혜

그림 : 송지인

행복한 나눔생활



딸랑딸랑!
나눔 저금통



어쩜 좋지?
한개가 부족해



나눔으로 키우는 나무

김만덕기념관

차례

3 딸랑딸랑! 나눔 저금통

12 숨은 그림 찾기

13 만덕저금통 만들기



15 어쩔 좋지? 한개가 부족해

22 다리를 이어 섬 건너기

24 색칠하기



25 나눔으로 키우는 나무

34 나눔나무 키우기

35 나눔 서약서



36 김만덕할머니 소개와
나눔 이야기



딸랑딸랑! 나눔 저금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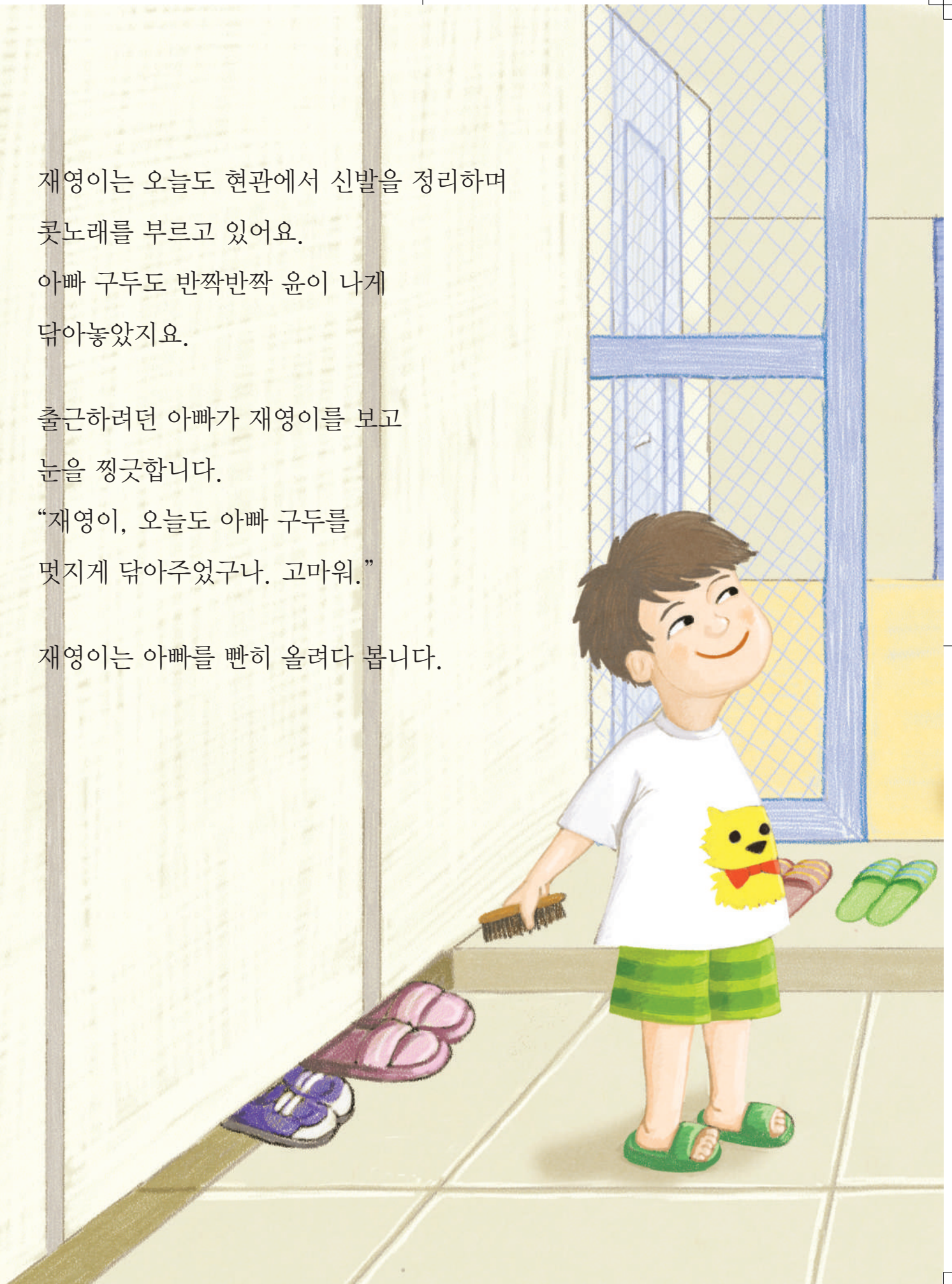


재영이는 오늘도 현관에서 신발을 정리하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아빠 구두도 반짝반짝 윤이 나게
닦아놓았지요.

출근하려던 아빠가 재영이를 보고
눈을 찡긍합니다.

“재영이, 오늘도 아빠 구두를
멋지게 닦아주었구나. 고마워.”

재영이는 아빠를 뽀뽀 올려다 봅니다.





“아 참. 아빠가 용돈을 잊었구나.”
아빠는 재영이의 손에 500원을
줘어주었어요.





재영이는 아빠가 주신 500원을 거실에 있는
저금통에 쏙 넣었습니다.

“돼지야, 많이 먹어라. 내가 밥 많이 줄게.”

재영이는 돈을 모아서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할머니~.”

할머니가 놀러오셨어요. 재영이는 할머니 품에 쏙 안겼어요.
향긋한 할머니 냄새를 맡으면 언제나 기분이 좋아요.

“우리 재영이. 아이스크림 사먹으렴.”

할머니가 용돈을 주셨어요. 천 원짜리를 세 장이나 주셨어요.

재영이는 천 원짜리 한 장을 저금통에 넣었어요.
두 장으로는 엄마랑 아이스크림을 사먹을 거예요.
“재영아. 그 돈을 왜 돼지한테 주는 거냐?”
할머니가 궁금해서 물어보셨어요.

“할머니가 전에 얘기해주신
김만덕할머니처럼,
저금통이 가득 차면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 거예요.”





재영이의 저금통은 어려운 이웃을 도울 ‘나눔저금통’이었어요.
재영이는 묵직해진 저금통을 품에 안고 뿌듯해졌어요.

“나도 김만덕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을 돕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숨은 그림 찾기

가뭄이 들어 먹을 것이 부족한 마을 사람들에게 김만덕 할머니가 쌀을 나눠주고 있어요.
할머니 덕분에 마을사람들은 굶주림에서 벗어났어요.



숨은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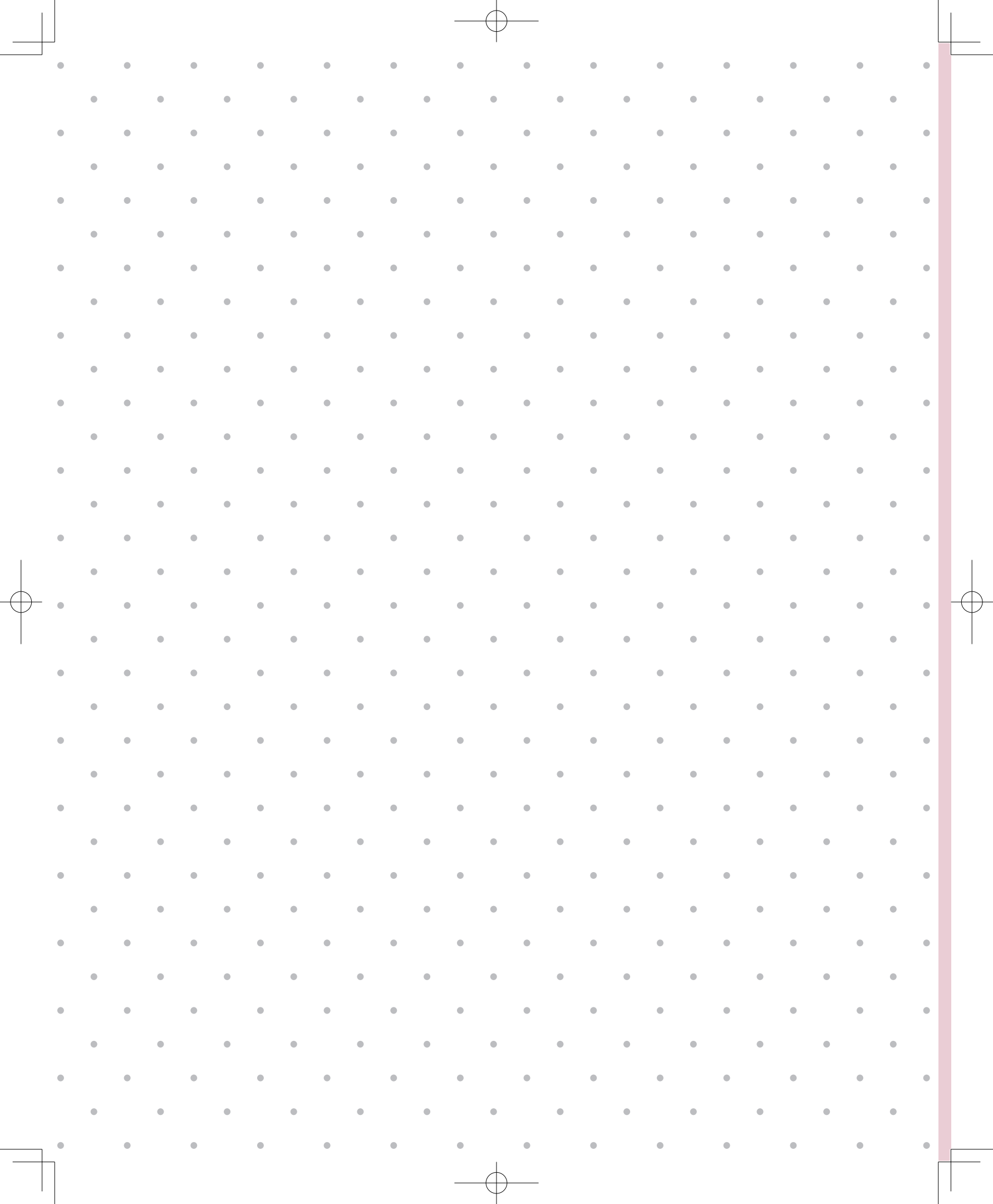
고양이, 개, 사과, 깃발
바나나, 오이, 빗자루

만덕저금통 만들기



뽕그랑 한 푼, 뽕그랑 두 푼,
작은 돈을 모아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볼까요? 선을 따라 접어서
만덕저금통을 완성해보세요.





어썸 좋지? 한개가 부족해



“냠냠”

수하는 사탕을 맛있게 먹다가
친구들 생각이 났어요.

‘놀이터에 가서 친구들이랑 나눠 먹어야지.’

수하는 사탕 5개를 챙겨서 놀이터로 향했어요.





수하가 생각했던 것처럼 놀이터에는 친한 친구들이 나와서
놀고 있었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 주려고 사탕 가져왔다~, 이리 모여봐.”



서영이 하나, 지후 하나, 수연이 하나, 수빈이 하나.
어, 민지는 어떡하지?

친구들이 모두 5명이라 사탕 한 개가 부족해요.
모두 사탕을 들고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어요.



사탕을 받지 못한 민지는
금방 울음이 터질 것 같아 보였어요.

어쩌면 좋을까요?

수하는 나머지 사탕 하나를 민지에게 주었어요.

“나는 집에서 하나 먹었어. 안 먹어도 괜찮아.”

민지는 수하에게 사탕을 받으며 생각했어요.

‘다음에는 내가 수하에게 맛있는 것을 나눠줘야겠다.’

민지가 환하게 웃자

수하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나눔은 이렇게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것인가 봐요.





다리를 이어 섬 건너기

바다 위에 작은 섬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 남을 배려하는 행동을 6개 골라 다리를 만들어보세요. 제주도에 도착해 김만덕 할머니를 만날 수 있어요.



친구와 우산을
함께 써요.

친구와 함께
놀던 장난감을
내가 치워요.

동생과 과자를
나눠 먹어요.

양손에 짐을 든
윗집 할머니를 위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드려요.

내 과자는 내 것이니까
친구들이 달라고 해도
주지 않아요.





동생이 흘린
밥풀은 동생한테
치우라고 해요.

내가 형이니까
동생보다 뭐든지
먼저해요.

친구가 없을 때
친구를 흥 봐요.

할머니 어깨를
주물러 드려요.

나눔저금통에
돈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도와요.

버스 의자에 내가 먼저
앉았으니까 누구에게도
양보할 필요 없어요.

색칠하기

사이좋게 사탕을 나눠먹은 친구들을 예쁘게 색칠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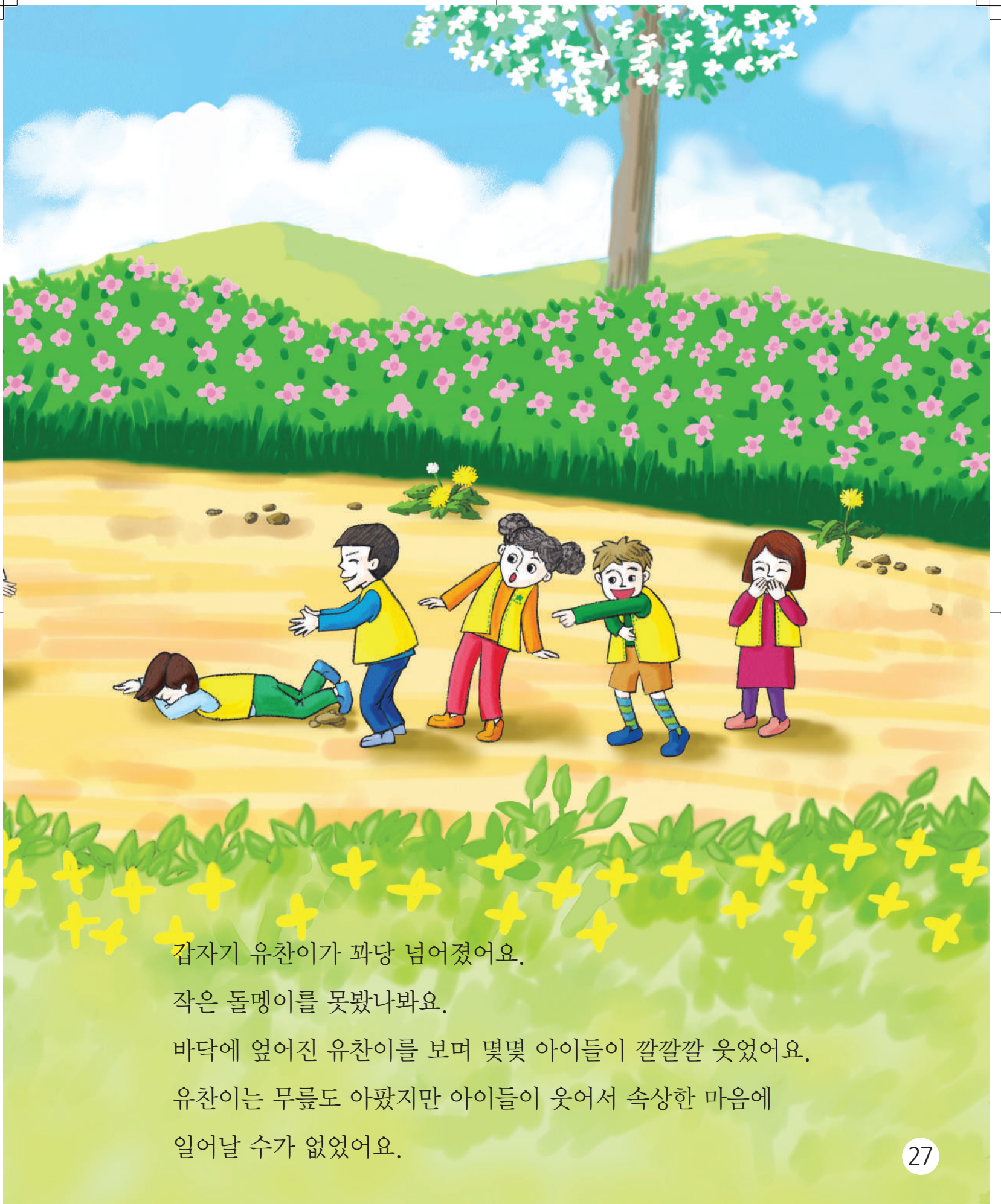


나눔으로 키우는 나무





오늘은 만덕유치원 아이들의 산책날입니다.
아이들은 모처럼 공원에 나와 재잘재잘 신이 났습니다.
아이들은 한줄 기차를 하고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걸어가고 있어요.



갑자기 유찬이가 파당 넘어졌어요.
작은 돌멩이를 못봤나봐요.
바닥에 엎어진 유찬이를 보며 몇몇 아이들이 깔깔깔 웃었어요.
유찬이는 무릎도 아팠지만 아이들이 웃어서 속상한 마음에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때 효정이가 유찬이에게 다가갔어요.

“유찬아, 괜찮니? 어서 일어나. 나도 넘어진 적이 있었어.”

효정이는 유찬이를 일으켜주고 위로해주었어요.

웃고 있던 친구들은 웃음을 멈추었어요.





유치원 친구들은 민들레 씨앗을 호~~오 불면서 재미나게
공원에서 놀았어요.

유찬이가 효정이에게 슬며시 다가와 말했어요.

“효정아, 고마워.”

열매반 선생님은 그 모습을 흐뭇한 얼굴로 바라보았어요.





열매

모두 교실로 돌아왔어요.

열매반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모두 앉으라고 하셨어요.

“아까 유찬이가 넘어졌을 때 효정이가 다가가서 일으켜주고
위로해주었지요?”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은 예쁘고 착한 마음이에요.

효정에게 나눔나무 스티커를 주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모두 찬성하죠?”

아이들은 큰소리로 “예”하고 외쳤어요.

효정은 선생님이 주신 스티커를 가지고 나눔나무에 똑꼭 눌러서 붙였어요.

어느새 나눔나무에 꽃잎이 많아져서 뿌듯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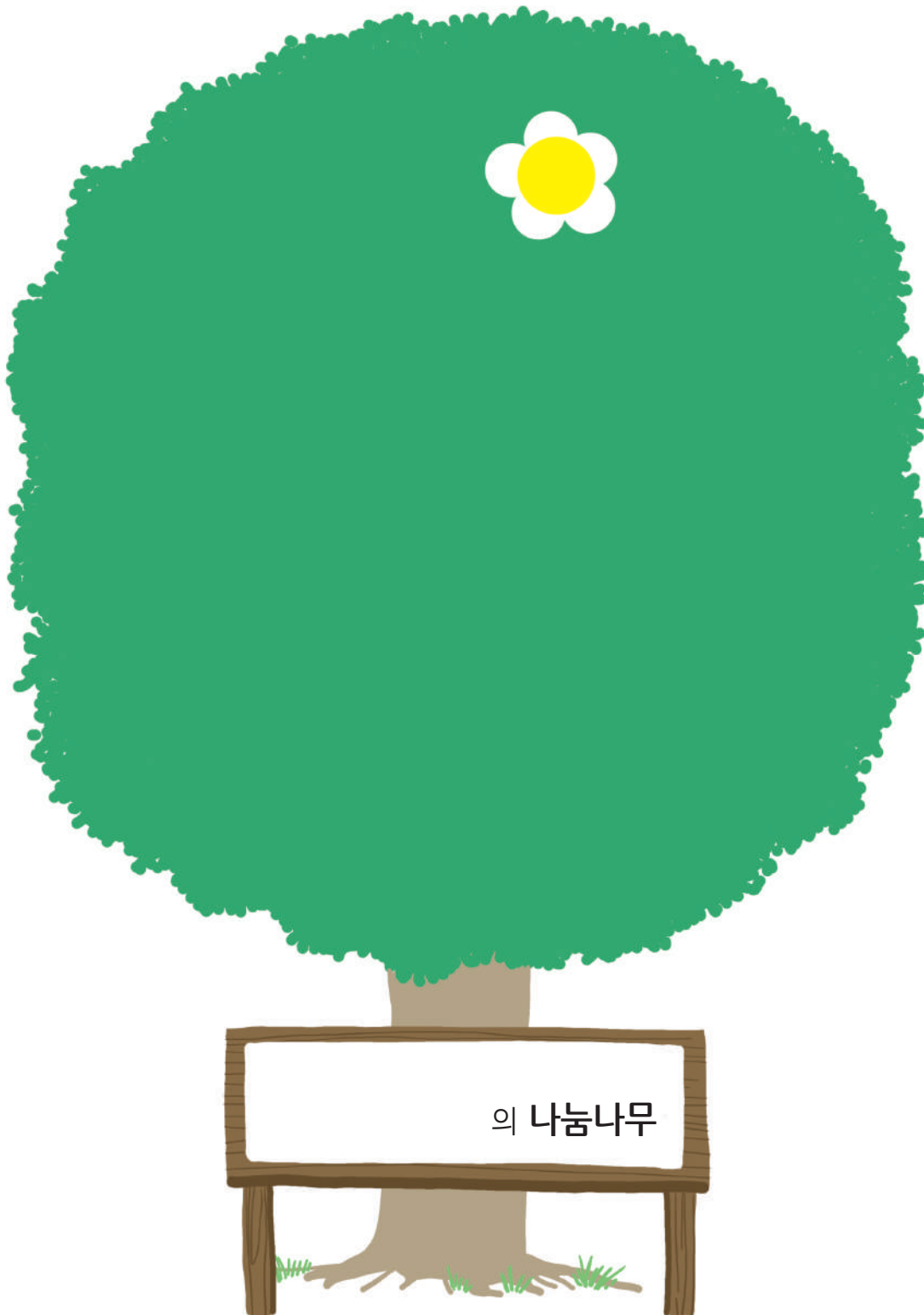
‘나도 김만덕 할머니처럼 남을 돕는 사람이 될 테야.’

친구를 배려하는 착한 마음은 나눔의 시작입니다.



나눔나무 키우기

친구와 가족을 배려하는 행동, 남을 돕는 행동, 남을 칭찬하는 말,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 더 이상 안쓰는 물건 나눔하기 등 나눔과 배려의 행동을 하고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 나눔나무를 키워보세요.



나눔 서약서

내 얼굴 꾸미기

나 _____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배려하겠습니다.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

20 . . .

김만덕기념관

김만덕할머니 소개

■ 김만덕은 누구일까요?

김만덕은 조선 시대(1739년)에 태어나 어렸을 때 부모를 여의어 기생이 되었으나 24살이 되던 해(1762년)에 양인 신분을 회복하고, 건입포구에 객주를 차려 거상이 되었다. 정조 16년~19년(1792~1795년)까지 계속된 흉년에 제주도민이 굶어 죽자 전 재산을 내놓아 쌀(구휼미救恤米)을 사들여 제주도민을 살렸다. 이 사실이 조정에 알려지자 당시 임금이었던 정조는 김만덕의 소원대로 의녀반수(醫女班首)라는 벼슬을 주어 궁궐에 오게 하고, 금강산 구경을 시켜 주었다.(1797년) 그 후 제주에 돌아와서도 도민들의 존경을 받으며 '만덕할머니'로 불려졌고, 순조12년(1812년)에 세상을 떠났다.



■ 김만덕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김만덕은 기생이라는 자신의 삶에 머물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여 신분 회복과 거상이라는 새로운 삶을 살았다. 그리고 흉년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제주도민들과 나누었다. 자신을 위해 도전하고, 같이들 위해 나섰던 김만덕의 삶과 정신을 본받아 여러분도 제2의 김만덕이 되어보면 어떨까요?^^

나눔 이야기

● 나눔이란?

나눔은 다른사람을 사랑하고 조화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돈, 시간, 재능, 마음, 힘(노동력)”을 주고 받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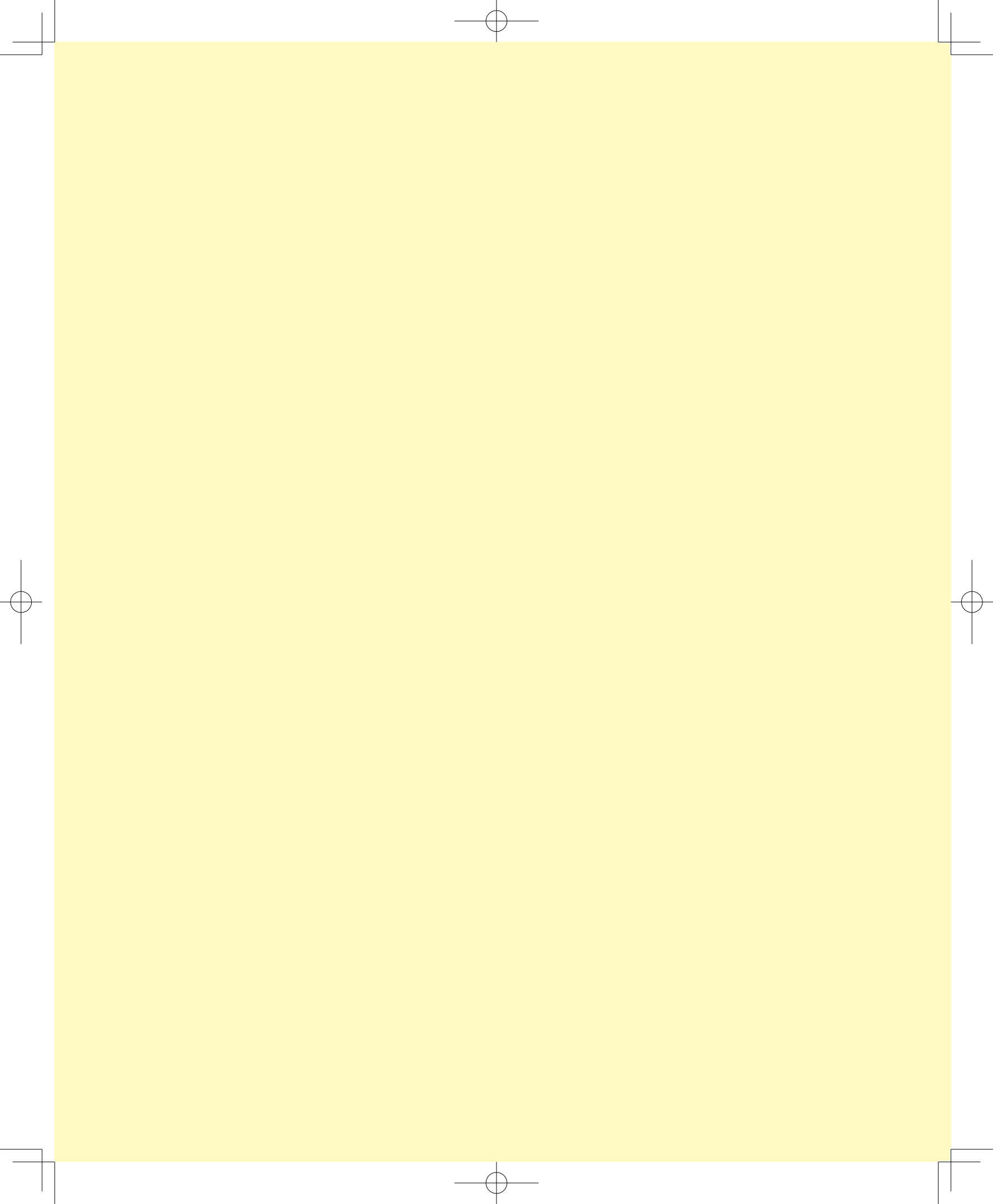
● 나눔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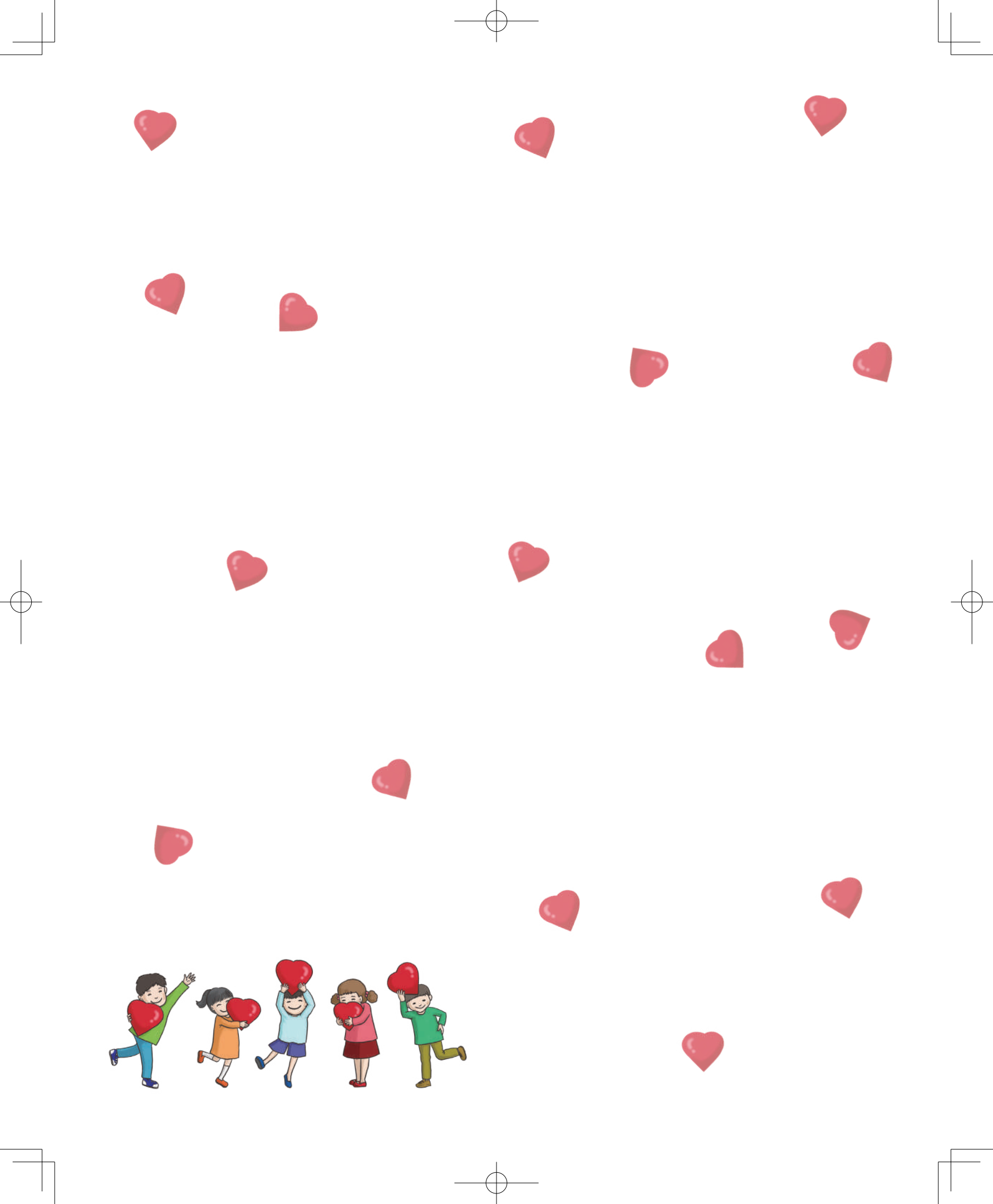
1. **인적나눔:**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자신이 익힌 지식이나 기술, 또는 노동력으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나눔의 방식으로 자원봉사와 재능기부가 있습니다.
2. **물적나눔:** 도움이 필요한 곳이나 공공 복지에 도움이 되는 일에 돈 또는 물품등 값으로 매길 수 있는 것을 대가 없이 기부하는 것입니다. 현금기부와 물품기부가 있습니다.
3. **생명나눔:**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건강 증진 및 생명 연장을 위해 자신의 신체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거나 공공의 복지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헌혈을 비롯해 사후 장기기증, 인체조직 기증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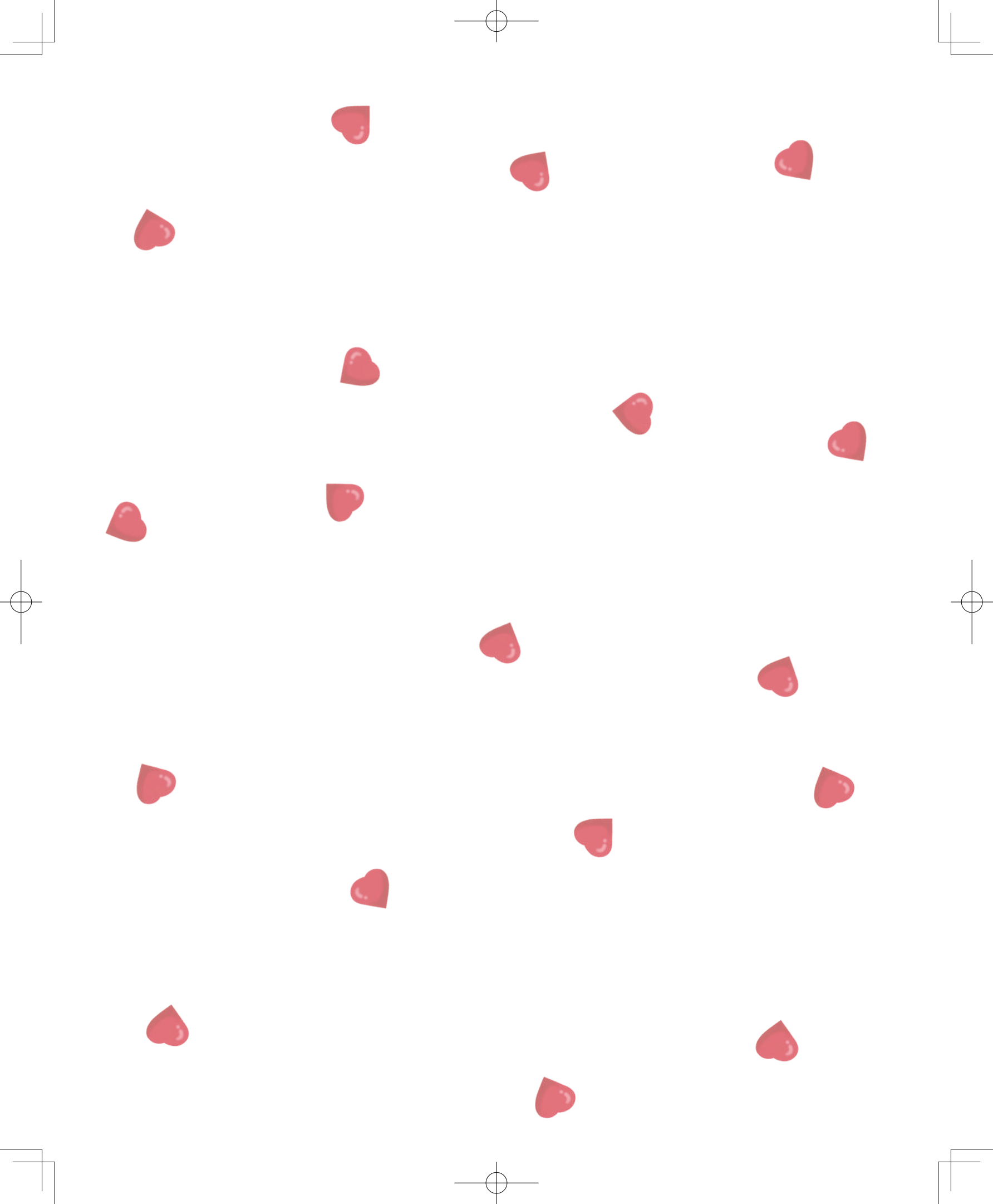
●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눔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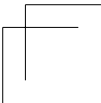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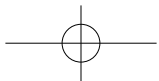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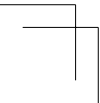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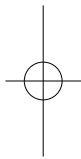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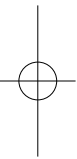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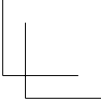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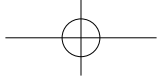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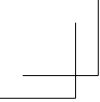
1. **우리집에서나눔하기:** 집안일 도와드리기, 사랑한다는 표현 자주하기, 서로서로 따듯하게 안아주기
2. **친구와 나눔하기:** 친구에게 학용품 빌려주기, 모르는 문제 알려주기, 친구 이야기 잘 들어주기, 친구가 슬퍼한다면 위로해주기
3. **이웃과 나눔하기:** 대중교통(버스) 자리 양보하기, 헌옷·사용하지 않는 물건(학용품) 나눔하기, 자원봉사 활동하기, 길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길 안내하기, 공원 쓰레기 줍기

이 밖에 어떤 나눔이 있을지 한번 찾아봅시다.









나눔나무 스티커

